

‘시민 누구나’ 촘촘한 돌봄 서비스망 짚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어떻게

신설 ‘광주+7대 서비스’ 핵심

소득·재산 등 상관 없이 신청

사각지대 최소화·체감도 제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신설한 ‘광주+돌봄 7대 서비스’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돌봄 틈새를 메우기 위한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 등이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

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광주시민의 약 52%)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이용하

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2642)’로 정했다.

수행 주체별 주요 역할은 광주시는 통합돌봄 체계 및 기반 구축·운영 지원을, 5개 자치구는 전담조직(과) 신설·동사례관리·서비스 지원망 구축을, 동은 돌봄계획 수립·서비스 결정 연계 등에 나선다.

공공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와 전문인력을 제공하며 민간·공공기관은 서비스 질 향보를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4일 앞둔 28일 오전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 “세계 정원문화 성공 롤모델로”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 점검

“방문객 편의·안전 최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해 박람회 개막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방문객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날 점검은 개막식 주요 행사가 펼쳐질 오전그린광장과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롭게 조성된 노을정원, 키즈가든, 국가정원식물원, 가든스테이, 국제원예생산지협회

(AIPH) 전시연출 경연 정원 등에서 방문객 편의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오는 31일 오후 6시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는 국내외 초청인사 1만과 일반 관람객 약 2만명 등 총 3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그린광장은 본래 대규모 흥수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다.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계절 잔디광장과 함께 1.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마로니에 길을 연출해 박람회장 주 무대로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순천만정원이 세계 정원문화의 성공적 롤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며 “2023년은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세 차례 예행연습을 통해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기부, 후원 및 입장권 사전 판매 등으로 8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정근산 기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당 지도부에 지역 현안 지원 요청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신임 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기현 당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을 잇따라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 5개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정 진심은 변함없다”며 “광주시당이 건의한 5개 구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 5개 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지원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4월 3일 광주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국비 건의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현 위원장은 “5개 구청 순회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지도부를 방문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대선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현장행정 ‘전남 우수 읍면동’ 10곳 선정

보성 노동면 대상 영예

전남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시책은 지방자치 최일선 행정 책임기관인 읍·면·동 역할 강화를 통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보성 노동면, 최우수상은 광양 중마동과 해남 옥전면, 우수상은 순천 해룡면, 함평 월야면, 완도 고금면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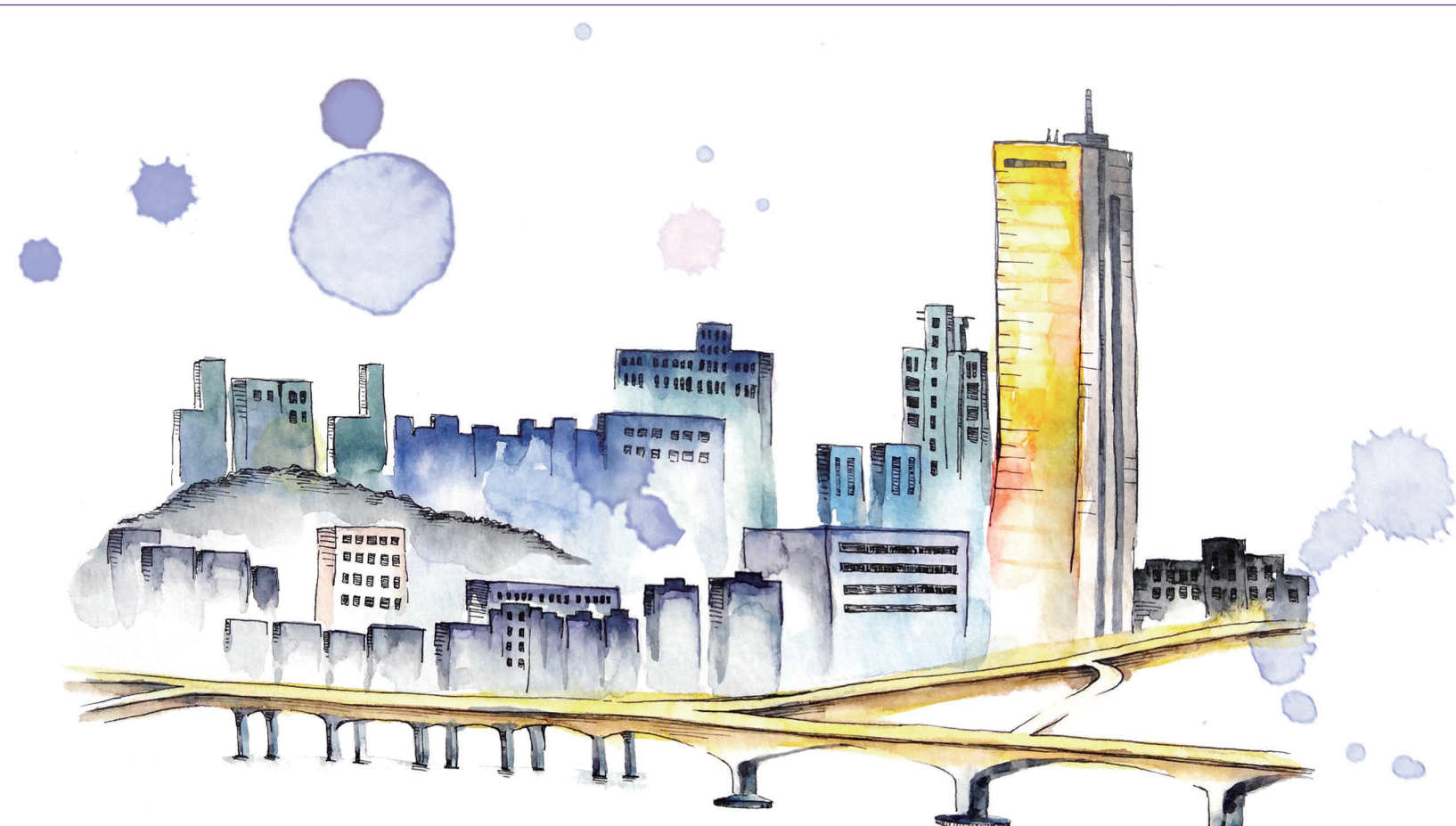
장려상은 목포 부흥동, 여수 화정면, 담양 금성면, 함평 월야면이 영예를 안았다.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발은 시군별 1개 우수 읍면동을 추천받아 1차 서면,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상에 선정된 보성 노동면은 15개 민간단체·봉사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한 ‘너와 내가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을 통해 휴경지에 감자를 공동 재배해 기부하고 있다. 또 선물꾸러미와 밀반찬 나눔, 안전돌봄 사업 등을 추진해 소통하고 희망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선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8일 “읍면동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수 읍면동을 지속 발굴해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